

# 자카르타 AG '금빛 셔틀콧' 날린다



광주체고 안세영 화순군청 전주이 단식·단체전 출전  
 배드민턴 대표팀 2020올림픽 겨냥 유망주 위주 구성  
 경험·체력이 관건...중국·일본과 치열한 경쟁 예고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번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020도쿄올림픽을 겨냥한 세대교체와 메달, 2마리 토끼를 노린다. 쉬운 일은 아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 세계 강호들이 아시아에 몰려 올림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체전과 여자복식,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주와 전남 출신 선수 2명도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표팀의 막내 광주체고 안세영(16)과 화순군청 전주이(23)다.

안세영은 광주체육중 3학년때인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최연소로 통과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는 주니어 무대가 아닌 시니어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5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에서는 4경기 전승으로 대표팀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배드민턴협회는 2020 도쿄올림픽을 내다보고 유망주 위주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자 명단을 작성했고, 안세영도 대표팀에 승선했다. 안세영은 성지현(27·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단체전과 단식 개인전에 출전한다.

김명자 광주체고 배드민턴 감독은 "대표팀은 어느정도 기본기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가는게 일반적이인데 (안)세영이는 아직 너무 어린 상태에서 합류해 걱정이 크다"며 "다른 선수들과 달리 아직은 기본기 위주의 훈련이 필요한데 대표팀의 현실상 세영이만 챙겨달라고 할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앞처리에서 단점을 보이고 있다"며 "어려서 경험이 없는게 단점이면서도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진 대표팀 감독은 "안세영은 도

쿄 올림픽 기대주다. 아시안게임에서 큰 대회 경험을 하면 좋을 것"이라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성인 선수까지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력이 좋고, 그동안 훈련하면서 힘도 붙었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안다치고 열심히 뛰고 오자"는 목표를 세웠다.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중인 안세영은 "대표팀 훈련은 힘이 든건 사실이지만 할만하다"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한 목표이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단체전과 여자단식에 잇따라 출전하는 안세영은 "뛰어야 하는 게임은 많겠지만 하루에 1게임씩 뛰는거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며 "연습한 만큼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안세영은 "어리긴 하지만 그만큼 오히려 부담없이 게임을 뛰려 한다"며 "2년 뒤 도쿄올림픽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체고 안세영



화순군청 전주이

단체전에 나서는 전주이는 화순만연초, 화순제일중, 화순여고를 거쳐 화순군청에 입단한 전남도박이다. 초등학교 4학년 운동회때 달리기를 하다 배드민턴 감독의 눈에 띄어 라켓을 잡았다. 강한 손목 힘을 바탕으로 한 반스매싱과 클리어 기술이 강점이며 전반적으로 강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

이다. 2012헝가리오픈 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3위, 2012독일오픈 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복식 2위, 2013세계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체 1위, 2013전국보철중·고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체 1위에 오른 실력파다. /최진화 기자



김정환 경합 지난 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2 2018 22라운드 대전 시티즌과 경기에서 광주 FC 김정환(오른쪽)이 대전 선수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광주FC 제공

## 광주FC 7경기 무패행진

대전과 1-1 무승부...4위 유지

광주FC가 7경기 무패행진을 달렸다. 광주는 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 KEB 하나은행 K리그2 2018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는 8승8무6패(승점 32)로 중간순위 4위를 지켰다. 광주는 전반 17분 정영총이 선제골에 성공했지만 후반 39분 대전 푸르스노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에이스 공격수 나상호의 공백을 잘 때웠고 월드컵 휴식이 이후 폭염으로 인한 최악의 날씨 속에서도 7경기 무패행진(3승4무)이라는 저력을 과시했다.

광주는 지난 성남전에서 효과를 봤던 다이아몬드 전술을 다시 내놨다. 여봉훈, 임민혁, 김동현, 최준혁이 중앙에 포진하고 나상호의 빈자리는 정영총이 맡았다.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정영총은 전반 17분 선제득점에 성공하며 역동적인 활동으로 광주의 공격을 책임졌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광주는 후반 펠리페와 두현석, 김정환을 투입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추가득점을 만들지 못한 게 아쉬웠다. 결국 후반 39분 대전 푸르스노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산과 2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청이 5일 충북 보은군스포츠파크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싱글라운드에서 단체전 1위에 올랐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채순 감독, 기보배, 이특영, 최민선, 이소현, 김소연.

##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단체전 1위

〈광주시청〉  
 싱글라운드 총점 4,127점 대회 신기록

광주시청이 5일 충북 보은군스포츠파크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켈리피케이션 싱글라운드(싱글라운드)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기보배는 개인전 3위에 올랐다. 기보배는 50m에서 34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60m 5위(348점), 70m 7위(332점), 30m 7위(356점)를 하면서 총점 1,379점으로 3위에 올랐다. 1위는 1,386점(대회 타이거즈)의 전주영(현대백화점), 2위는 1,383점을 한 심예지(현대모비스)가 차지했다. 최민선은 70m 329점(18위), 60m 350점(2위), 50m 339점(10위), 30m 357점(4위) 총점 1,375점으로 4위를 했으며 김소연은 70m 328점(23위), 60m 350점(2위), 50m 340점(7위),

30m 355점(9위) 총점 1,373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특영은 70m 331점(12위), 60m 343점(16위), 50m 340점(7위), 30m 350점(34위) 총점 1,364점으로 13위를 했다. 광주시청은 총점 4,127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 대전시체육회(4,097점)와 예천군청(4,094점)을 2.3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청은 올해 전국대회 전 대회에서 켈리피케이션 라운드 1위를 하며 전국 최고 여자실업팀다운 실력을 과시중이다. 올림픽라운드 개인전에서는 최민선, 이소현이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단체전은 6일 준결승이 열린다.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은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겠다”

양현종 타이거즈 좌완 최초 5년 연속 10승  
 “2차례 남은 등판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



KIA 타이거즈 양현종(30)이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지난 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8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두산 베어스전에서 올시즌 10승(8패)을 달성한 양현종은 “아시안 게임까지 2차례 정도 등판이 남았는데 로테이션을 거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잘 준비해서 2경기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종의 이날 승리는 KIA 타이거즈에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양현종은 최근 한달간 ‘아홉수’로 고전했다. 지난 7월3일 광주 한화전에서 9승을 거둔 양현종은 그 뒤 한 달간 4차례 등판했지만 2패만을 떠안으며 승리를 품지 못했다. 이날 승리는 5번째 도전 만에 얻은 값진 결실이었다. 양현종의 슬럼프가 길어지자 그를 1선발로 생각했던 AG 대표팀도 노심 조사했다.

최정(SK), 박민우(NC), 차우찬(LG), 임기영(KIA) 등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이 최근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양현종마저 최근 한 달간 슬럼프를 겪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임기영이 지난달 31일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데다 양현종이 아홉수 탈출과 함께 예시다운 구위를 선보이면서 대표팀도 한시를 탈게 됐다. 양현종은 이날 승리로 타이거즈 좌완 투수 최초 5년 연속 10승을 달성했다. KBO리그 역대 12번째이며 타이거즈 투수로는 선동열(6년 연속·1986~1991년), 이강철(10년 연속·1989~1998년)에 이어 세번째다. 5번째 도전에서 10승을 달성한 양현종은 “지금까지 아홉수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길게 느껴졌다”며 “운도 따르고 야수들이 잘 막아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타이거즈 최초 기록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기록이 나올때마다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생긴다”며 “후배나 다른 선수들이 제 기록을 깨지 못하도록 더 많은 성적을 올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